

“5·18의 분노가 시사만화가 길로 이끌어”

광주 첫 만화 작품전 ‘숨쉬는 이유’ 개막 행사 참석 박재동 화백

박재동(62) 화백의 첫인상은 그랬다. 임버릇처럼 “나이가 들면 아름다운 흰머리를 가지고 싶다”는 한 회화 선배의 말처럼 어깨까지 내려오는 하얗게 센 박 화백의 머리는 흰찰한 기, 서글서글한 미소와 어우러지면서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을 줬다. 재킷 한쪽 주머니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고, 안쪽 주머니에는 붓펜 2자루가 꽂혀 있었다. 세상을 그리는 만화가, 현재와 일상을 기록하는 시사만화가 박 화백은 그랬다.

‘한겨레 만평’ 8년은 날마다 전투

소소한 일상 그린 ‘손바닥 그림’ 운동 29일까지 메이홀서 200여점 전시

오는 29일(오전 11시~오후6시, 공휴일 휴관)까지 광주 메이홀에서 열리는 박재동 신작전 ‘숨 쉬는 이유’ 개막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 광주를 찾은 박 화백을 만났다.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박 화백의 만화 작품전이다.

시사만화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변신한 그는 최근에는 ‘손바닥 그림’ 운동가로 시민들에게 작은 만화와 그림을 보급하고 있다. 어른 손바닥만한 스케치북에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것들을 똑딱 그려내는 것이 그가 말하는 ‘손바닥 그림’이다. 인상 좋은 과일가게 아저씨부터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 동네 파지 줌는 할머니, 선술집 손님들의 이야기까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을 그는 그림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그의 재킷에 항상 스케치북과 붓펜이 들어 있는 이유다.

“손바닥만하게 그려도 대작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우리가 학교에서 12년간 미술을 배우지만 그 미술을 취미로 가진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난 못 그려’하고 말하는 것이 전부지요. 우리 미술 교육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못 그려도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미술 선생님을 내보내세요. 구경만 하지



신작전 ‘숨 쉬는 이유’ 개막행사에 참석한 박재동 화백.

마시고 스케치북에 몇 줄의 선으로 인상깊었던 일들을 그려보세요.”

박 화백은 예술가를 존중하는 도시 광주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자신을 시사만화가 길로 들어서게 한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곳이라서 더욱 그렇다.

“될 수 있으면 전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메이홀은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특히 제 표 같고 살 같은 ‘한겨레 그림판’을 100여 점 가까이 선보이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린 그림이고, 다시는 그릴 수 없는 작품들이죠.”

만화방 주인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레 만화를 보고 그렸던 그는 서울대 미대 졸업 후 워낙에서 미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1988년 한겨레 신문에 입사해 8년간 ‘한겨레 그림판’이라는 이름으로 만평을 그렸다. “한국의 시사만화는 박재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만평은 총질살이었다.

두 가지가 그를 시사만화가의 길로 이끌었다. 하나는 5·18 등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만화를 그려보고 싶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선생님 같은 그림은 안 그릴 거예요. 삶도 없고, 역사도 없잖아요”라는 제자의 말을 듣고 서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추상화에 빠져 있었는데, 제자의 말을 듣고, 매일 삶을 그릴 수 있는 시사만화가의 길을 택했다.

“시사만화가가 매일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아픈 곳을 후벼파야 합니다. 하지만 파सन 것이 없으면 분노할 수 없어요. 8년간은 전쟁 전투였습니까. 시사만화가가 굉장히 골 터지는 일이지. 또 영영이를 ‘주구장장’ 붙이고, 그 순간, 또 매일 혼신을 다해 ‘구구구구’ 그려야 독자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잘 했어요.(웃음) 한마디로 노동이고, 땀을 싸는 일이지.”

그는 ‘한겨레 신문’ 전체와 경쟁하겠다는 생각으로 만평을 그렸다. 박 화백은 시사만화가에게 변독이는 아이디어와 전제적인 영감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도 그리면 순간 나 자신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아니야’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다른 이들에게 평가를 받았죠. 저는 이미 오염돼서 잘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8년 정도 되니까 밀친이 다 떨어져 신문사를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리고도 내가 높았는데,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림을 통해 시대를 말해온 그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지. 아직도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너무 답답하기만 하죠. 후배들이 만평으로 잘 다뤘는데, 저도 그림쟁이이니 이번 참사에 희생된 아이들의 캐리커처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선장이고, 승무원이었다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의 010-6791-805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심사위원〉 서영화(조선대 교수) 김신영(목포대 교수) 한정숙(호신대 교수) 황미경(순천대 교수) 이훈진(세한대 교수)	▲은상 21 김민경(화순중3) 22 박윤서(전주예중3) 25 박다은(순천신흥중3) 30 김민정(윤립중3) 32 김다은(목포하당중3) 36 조유화(화순제일중3)	12 나지원(전주예고2) 17 경시은(국제고2) 18 이재영(인성고2) ▲동상 2 정윤형(전남여고1) 3 정 희(전남예고2) 4 강유빈(순천강남여고1) 15 김한솔(문정여고2) 19 윤성훈(상무고1) 20 최재연(전주예고2)
◇중등부 1, 2학년 ▲최고상 17 홍수빈(목포하당중2) ▲금상 14 정혜림(여천중2) ▲은상 3 배준희(목포하당중1) 5 나은수(상일중2) 16 강진호(주월중2) ▲동상 1 김수겸(수완중1) 2 안기재(순창중2) 4 박민기(순천팔마중1) 7 심세희(봉산중2) 8 정지민(상일중1) 10 이민영(전주예중1) 12 정하영(살레시오여중1) 15 양보미(대성여중1) 18 문민홍(목포제일중2)	▲동상 20 김세영(전주덕진중3) 23 정혜은(순천왕윤중3) 26 김유빈(목포하당중3) 27 윤재희(군산동원중3) 28 조진영(고려중3) 29 윤혜영(일동중3) 31 이혜진(광주중3) 33 박인하(신창중3) 34 양 현(산정중3) 35 김가람(경신중3) 38 전민재(광주신창중3)	◇고등부 3학년 ▲최고상 34 이다민(전남예고3) ▲금상 22 김지수(동명고3) ▲은상 21 이윤영(광주예고3) 25 김미소(전주예고3) 27 김주원(광주중앙여고3) 32 이혜린(전남예고3) ▲동상 23 조상호(광주예고3) 24 이다민(여수충무고3) 26 박선영(운남고3) 28 정희진(전남예고3) 29 최현진(전주예고3) 31 김승범(광주동성고3) 33 김승하(목상고3) 35 주가현(전남예고3)
◇중등부 3학년 ▲금상 19 김대영(전주예중3) 24 이다연(운암중3) 37 김정우(경신중3)	◇고등부 1, 2학년 ▲최고상 5 김준형(전주예고2) ▲금상 1 신현진(광주예고2) 8 최우석(팔마고1) 16 양진신(광주예고1) ▲은상 6 최초원(장덕고2) 7 박하민(광주예고2) 10 황민아(광주중앙여고2) 11 김연지(전남예고1)	

세월호 아픔 위로하고 ‘5월 광주’ 기린다

日우타고에 합창단 초청 19일 ‘국제교류음악회’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5월 광주 항쟁을 기리는 음악회가 열린다.

(사)광주민예총(회장 윤만식)과 5·18기념재단은 19일 오후 7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사직공원 옛 KBS 방송국)에서 2014 국제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일본 노래운동 단체 우타고에합창단(사진)이 무대에서 눈길을 끈다. 1948년 시작된 우타고에합창단은 아름다운 일본 민중의 노래,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의 평화 노래 등을 부르는 단체로 현재 400여명에 이른다.

우타고에 합창단은 지난 1998년부터 광주를 방문, 5·18 전야제에서 합창 공연을 갖는 등 오랫동안 광주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주 5·18을 다룬 뮤지컬 ‘화려한 휴가’ 초청 공연을 일본 도쿄에서 진행, 광주 민주항쟁을 일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남을 위한 행진곡’과 ‘임진강’ 등을 부른다.

이날 공연에서는 또 광산구합창단(지휘자 정유하)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 ‘희망이 만드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를 들려주며 광주에서 오랫동안 노래운동을 해온 주하주, 정용수씨가 ‘벗이여 해방이 온다’, ‘분꽃이’, ‘지리산’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228-11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전대상대2분
(미래로 아파트 용봉지구 코너)
신축 4층 톨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1억 5000만)
수익률 12% 11억5천

② 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127개)★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6억7천(보3천, 용 1억2천)

③ 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용1억2) 수익률 13%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원룸형 투룸형현역2년)★
원룸시절엔비 울리모달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 원룸형 (10평) 3천3백(보증금 200, 월 27, 용1000)
• 원룸형(11평) 매가 3천4백(보 200, 월 27, 용1000)
★2채매입사★총매가6천5백(매우2000만) 실투자 4500만
(월수익 54만원) 수익률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수완지구3층(85평)
매가3억5천
모이엘가 APT입구
5000세대
최고위층 노후보장
(학원, 사무실, 투자적합)
(보3천 월190만 용2억5천)
수익률 13%연 2400만원
전용률 높음

침단지구
상가매매2층
침단지구2층(62평)
매가1억7천
오션스파 임대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됨
(주인직접 사용자)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대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중시지7가 11억6천 매도 11억
- 쌍촌역 인근고시원 대지 272㎡(87)건물 493㎡(149) 수익률 보증금 3천에 월 580천 연금생활에 적합 5억 2천
-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3천 월500천 수익 5억2천
- 700만원에 이전해갈 생활주택부지 영암읍 도로점 1380㎡(417) 대출 1억2천 원룸 적합 700만원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땅 공장,창고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시내 목욕탕과 여관동 대지 765㎡(231)건물 2529㎡(765) 감정 22억 대출없음 매도 13억
- 쌍촌역 4거리 내대지 377㎡(111)7억천
- 무인택시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입지 1666㎡(504) 대출 13억천 매도 은행 인수하고 9천만원
- 영암읍 APT와 생활주택 112세대 허가난방 4615㎡(1396) 은행 3억2천 매도,교환 6억3천
- 쌍촌동 5.18공원 건너편 원룸촌 대지 198㎡ 건물 453㎡(137) 1층 카페와 안집, 원룸 15개 5억천
- 원룸, 생활주택부지 쌍촌동 1층 주차지 2236㎡(676) 대출 8억4천 매도 13억

임대·투자·교환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222㎡(67) 건물 330㎡(100) 운전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천 월 300천수익 매도3억천
- 신안동 상업지 333㎡원룸 등 적합 3억 2천
- 남구 사동 사적공원 10월 준공예정 생활주택 85㎡ 은행 1억5천천 생활여건 좋음 2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랜차이즈 입점)
- ▶ 북구 신용동 유치원 건물 매매 23억
-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대 27억(보4.1억 월1,240만)
- ▶ 서구 쌍촌동 5층건물 매대 15억 (보1.7억 월700만)
-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대 40억 (보4억 월2,000만)
- ▶ 광산구 수완지구 상가건물 매대 110억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 답 1,990㎡ 매대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주차지대지 대지 760㎡ 매대 16억
-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대54억(병원지적)
-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1,920㎡ 매대 12억(창고적합)
- ▶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대 29억(4거리코너)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대 6억5천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대39억
- ▶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대 20억
- ▶ 담양군 원산면 잡종지 29,800㎡ 매대 16억
- ▶ 세하동 청고 1,590㎡(건234㎡) 매대 7.2억
- ▶ 벽진동 청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 정남진 장점, 특மான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철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슬러는 별장.
-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